

염주주공 재건축 시공사 '포스코' 선정

2020년 30층 높이 67~84㎡ 4개 유형 1942가구 건립 전국 최대 규모 광천동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 탄력

광주지역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년 여를 끌어오던 염주주공 재건축 사업은 지난 18일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건립에 착수했으며 전국 최대 규모가 될 광천동 재개발사업도 조만간 시공사 선정 등을 앞두고 있다. 분양 열기를 타고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도심 재생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19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염주주공주택재건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재건축 시공

사로 포스코건설을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에는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SK건설 컨소시엄이 각축전을 벌였으며, 906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이날 시공사 선정 투표에서 716명(79%)이 포스코를 선택해 향후 내집으로 '염주 포스코 더샵'(가칭)을 더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주주공 재건축 사업은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반 철거 및 주민들의 이주가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 1942가구로 승인 받았지만 조합 측은 용적률 변경을 통해 2148가구

로 늘리기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김동근 조합장은 "염주주공아파트는 2020년 30층 높이의 전용면적 67~84㎡의 4가지 아파트형으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이라며 "광주유니버시아드 선수촌으로 사용된 회장 힐스테이트와 더불어 서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재개발에 착수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서구 광천동 주택재개발 사업도 최근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조합 설립에 이어 6월엔 인가신청을 마쳤고, 시공사 선정에 위한 작업 역시 진행되고 있다. 광천동 재개발은 호광초등학교와 광천시장 일대 42만6380㎡에 지상 10~34층, 아파트 48개동 5351가

구를 신축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다. 내년 2월에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물밑접촉을 통해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광천동 외에도 동구의 자원2-1구역과 계림2구역, 계림4구역, 계림7구역 역시 지역 건설사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지역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외곽 택지지구 중심으로 도시 저변이 확대됐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광주 도심의 지형 변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고급화 등 활기 넘치는 미래의 광주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광주상의 오늘 청년고용포럼

광주상공회의소가 20일 오후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광주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46차 광주고용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광주시민선 6기 역점 시책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선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 정경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청년일자리정책 제언-새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청년들 스스로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또 이정원 한국장직협회 회장은 '광주지역 청년역사형 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광주시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별 모델과 청년 지원 실행전략을 소개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는 단기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65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7 18 19 27 29 42 45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일치	1,336,604,21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1,261,027
3 5개 숫자일치	1,388,352
4 4개 숫자일치	50,000
5 3개 숫자일치	5,000



미스터 올스타 롯데 강민호, K5 탄다. 지난 18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15 KBO리그 올스타전'에서 미스터 올스타로 선정된 강민호 롯데이치온 선수가 부상으로 제공된 기아자동차의 신형 K5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2012년부터 4년 연속 한국프로야구 자동차부품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양산 보단 품질이 우선 돼야"

"금호아시아나 500년 영속기업"

"금호아시아나그룹은 500년 영속 기업이 돼야 합니다."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의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5 하반기 임원 전략경영세미나'에서 이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전 계열사의 노력을 촉구했다.

19일 그룹 측에 따르면 국내외 계열사 임원 156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박 회장은 "기업이 영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에 대한 계승과 이를 변화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룹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재인수와 관련, "채권단과 잘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앞으로 강하고 힘 있고 맛있는 금호아시아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박 회장은 각 계열사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계속된 금호타이어의 실적 부진을 위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에 대해 "회사의 전략 방향부터 재정

립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양산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품질 우선주의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호타이어의 1분기 실적 악화는 자동차 산업의 저성장 및 글로벌 경기 침체, 유로화 약세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경쟁사와 비교해 영업 이익이 급감한 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 품질, 생산, 기술력, 영업, 관리 모든 분야에서 금호타이어의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사 대비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설비투자, 연구개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통과

이재용 부회장, 지배력 강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통과됐다.

삼성물산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제1호 의안인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찬성률 69.53%로 가결했다. 주총 의장인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이날 낮 12시47분께 "1억3235만5800주가 투표에 참여해 이중 총 9202만3천660주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현장 표결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의 참석률은 83.57%로 집계됐다. 전체 주식 총수(1억5621만7764주)에 대비한 합병 찬성률은 58.91%다.

이로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합병 저지 시도는 불발에 그쳤다.

엘리엇은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매입 공시 이후 지속적으로 합병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법원에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삼성물산은 표결에서 특수관계인-계열사(13.92%)와 KCC(5.96%), 국민연금(11.21%)의 찬성표에다 국민연금의 국내기관(11.05%) 대다수의 지지를 확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33%의 소액주주 중 일부도 합병안 찬성 쪽에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확실한 반대표는 엘리엇(7.12%)과 메이슨캐피탈(2.18%)을 포함한 외국인 및 소액주주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일모직도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삼성생명빌딩 1층 컨퍼런스홀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삼성물산과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9월1일자로 합병해 통합 삼성물산으로 출범하게 됐다. 법인사명은 글로벌 브랜드인지도와 그룹 창업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사용한다. 합병회사는 오는 2020년 매출 60조원, 세전이익 4조원을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51.2%의 지분을 보유한 그룹 신수총사업 바이오부문에서 2조원 이상의 시너지효과를 목표로 한다.

이번 합병 성사로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던 삼성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구조가 통합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단순화됐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질적 지주사인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서 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다. /연합뉴스



콜핑, 유럽 최대 아웃도어 전시회 참가

프리미엄 이미지로 유럽 공략

국내 정통 아웃도어 기업인 콜핑(회장 박만영)이 지난 15~18일 유럽 최대 규모의 아웃도어 전시회인 '제22회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 유러피안 아웃도어 트레이드쇼'(사진)에 참가해 본격적인 유럽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콜핑은 대형 전시부스에서 독일 심파텍사와 공동 개발 제품 및 2015 가을-겨울 동계 제품, 2016 봄-여름 제품들을 대거 선보이며 한국 명품 브랜드로서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개막일인 15일에는 린다우 바트슈아

현호텔에서 '코리안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콜핑·(주)비타일 회장인 박만영 한국아웃도어산업협회 회장과 안 노호 바우데 대표, 마이클 캄 심파텍스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의 스포츠 및 아웃도어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아웃도어 산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콜핑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이미지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콜핑은 20일 독일 심파텍사와 뮌헨에서 업무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럽시장 공략에 나선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크리마, 미스전복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지내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니은행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나는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